

‘글로벌 AI컨퍼런스’ 개막...광주 AI 중심도시 본격 시동

오늘까지 DJ센터...기술·혁신전략 공유
AI컴퓨팅센터·AI연구원·AI집적단지 등
3대 과제 추진...姜시장 “AI 비전 박차”

국제 인공지능(AI) 학술대회인 ‘글로벌 AI컨퍼런스 AICON 광주 2025’가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16일까지 열리며 광주가 ‘AI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 및 시의원, 안태욱 국민의원 광주시당 위원장,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 유관기관장, AI 관련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AI 분야 최고의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AI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가 ‘국내 AI산업 육성 정책과 현황’을, 세계적 명문대학인 런던정치경제대학에 재직하며 ‘디지털 이노베이션’ 개념을 학문적으로 최초로 정립한 유영진 교수가 ‘생태계로서의 AI’에 대해 각각 기조강연을 했다.

특별강연에서는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과 중국 AI 분야의 명문대학인 북경우전대학교 차오 위안위안 교수, 레오 지양 싱가포르의 AI 정책과 산업 동향을 소개했다.
세션 I-VI 토론회에서는 AI 혁신기업과 반도체, 초기 창업기업 대표 등이 반도체 팹리스(설계)·모빌리티·문화콘텐츠·디지털헬스케어 등 최신 기술 동향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AI 비즈니스 모델 및 신성장 동력 발굴에 나선다.
학술대회와 동시 개최되는 ‘AI TECH+2025’에서는 45개 기업 75개 부스가 마련돼 ▲AI반도체 ▲컴퓨팅 ▲클라우드 ▲드론 ▲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AI 기술이 전시되고 있다.
AI 관련 기업의 전시 부스, AI 체험존, 드론 체험관 등이 운영돼 참관객들이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의 트렌드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강기정 시장은 환영사에서 “2017년부터 꿈꿔온 AI 중심도시 광주의 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3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를 명실상부한 AI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제시한 3대 과제는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국가AI연구원 설립 ▲AI 집적단지 지정이다.
강 시장은 “AI컴퓨팅센터, 연구원 설립, 집적

단지 지정 등을 통해 광주가 명실상부 모두의 AI를 펼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강 시장은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와 관련, “이미 확보된 AX실증밸리 6천억원의 예산과 더불어 광주를 기업과 일자리가 생기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줄 중요한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2017년 광주와 중국 항저우가 AI 사업을 시작했지만 최근 중국 출장에서 확인한 발전 속도 차이를 확인했다”며 “정부의 투자의지가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다. 새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광주시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막 오른 총장축제 제22회 추석의 총장축제가 개막한 15일 오후 광주 동구 추석의 거리에서 추억유랑단원들이 추억의 놀이를 즐기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전남 유인도서 10곳 중 7곳 ‘닥터헬기’ 이착륙 못해

232개소 가운데 70개소에만 이착륙장
전남 유인도서 10개소 중 7개소에 응급의료전용헬기인 ‘닥터헬기’ 인계점(이착륙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의료취약지인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닥터헬기 이착륙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를 제외한 전남 유인도서 232개소 가운데 닥터헬기 인계점이 있는 섬은 70개소(30.2%)에 불과했다. 인계점이 없는 섬은 162개소로 69.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도 전체 유인도서 320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섬은 36.6%인 117개소 뿐이었다.
전남은 유인도서 29개소 중 14개소(48.3%), 인천은 27개소 중 21개소(77.8%), 전북은 18개소 중 4개소(22.2%), 제주도는 8개소 중 6개소(75.0%), 경기도는 3개소 중 2개소(66.7%)에 인계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인도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은 2011년부터 목포한국병원에 닥터헬기를 배치해 운용 중이다.

전남을 비롯해 인천·강원·경북·충남·전북·경기·제주 등 전국 8개 권역에 배치된 닥터헬기는 매년 1천명대의 도서지역 환자를 육지의 병원으로 응급 이송하고 있다.
그러나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 관련 예산은 2024년 14억원에서 2025년 5억원으로 감액됐고 2026년 예산안도 5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닥터헬기 인계점은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이자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필수 인프라”라며 “유인도서 등 보건의료 취약지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전남을 비롯해 인천·강원·경북·충남·전북·경기·제주 등 전국 8개 권역에 배치된 닥터헬기는 매년 1천명대의 도서지역 환자를 육지의 병원으로 응급 이송하고 있다.
그러나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 관련 예산은 2024년 14억원에서 2025년 5억원으로 감액됐고 2026년 예산안도 5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닥터헬기 인계점은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이자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필수 인프라”라며 “유인도서 등 보건의료 취약지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전남농기원, ‘유자씨 착유박’ 활용 화장품 개발

부산물 고부가가치 산업화 기대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5일 “그동안 폐기 비용을 들여 처리하던 유자씨 착유박을 화장품 원료로 재활용해 ‘CITRON 5종’ 화장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유자는 전국적으로 약 1천463ha에 재배되고 있다. 이 중 전남이 1천164ha(79.5%)를 차지해 대표적인 지역특화 작목으로 꼽힌다.
현재 대부분의 유자는 청·작업역 등 가공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유자청 가공 과정에서 연간 3천t 이상의 유자씨가 부산물로 발생한다. 이로 인한 폐기 비용은 연간 약 30억원에 달한다.
유자씨를 착유하면 전체 중 약 10%의 오일이 추출된다. 이 오일은 주로 화장품 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착유 후 남은 유자씨박(착유박)은 그동안 별다른 용도 없이 폐기돼 왔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는 유자씨 착유박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인 ‘리모노이드’를 고수율로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올해 특허 출원했다. 이를 기반으로 ‘CITRON’ 시리즈 화장품 5종을 완성했다.
이번 특허 기술은 화장품 제조업체에 기술이 전할 예정이며 기업을 통해 상용화가 추진된다. 이보배 과수연구소 연구사는 “그동안 버려지던 농산 부산물이 이제는 지역의 유용한 자원으로 재조명되고 있다”며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 보호는 물론,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15곳 적발

광주시는 15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대규모 국제행사 기간 동안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 249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1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이다.
단속 결과, 북구 A씨는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

공수역인 하천에 불법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산구 B업체는 가축분뇨 퇴비제품 보관시설 내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하천으로 유출했으며, 광산구 C업체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시는 위반이 확인된 15개 사업장 중 경미한 위반 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중대한 위반행위가 드러난 8개소는 자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변은진기자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